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1월 16일(금)  
(음력 11월 28일)  
Пятница  
16 января 2026 г.  
№ 2 (1216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월 19일은 러시아에서 정교회 주현절을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정교인들의 행진.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주, 비상사태 없이 새해연휴 보내

사할린주의 신년 연휴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겨울 방학과 연휴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스포츠와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했으며, 무엇보다 이 기간이 지역 내에서 심각한 사고 없이 지나간 점이 주목된다.

스포츠·관광 단지인 '고르니 워즈 두흐'는 사할린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올해 초부터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5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케 이블카 총 이용 횟수는 36만 회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만 9천 명이 방문했던 것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다.

스포츠 여가 활동에 못지않게 문화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문화 기관들은 연휴 기간에도 활발히 운영됐으며, 12월 31일부터 1월 11일까지 총 42개의 행사가 열려 5만 명 이상의 시민과 방문객이 참여했다. 이 기간 동안

마스터클래스와 스포츠·놀이 프로그램, 견학, 다양한 문화·오락 행사가 진행됐다.

체호프 기념 연극 센터는 특히 높은 인기를 끌었다. 연휴 기간 동안 59회의 공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2만 명이 넘는 관객이 이를 관람했다. 또한 36가구의 어린이 약 100명은 연극 센터의 '서리 할아버지'와 '눈꽃 소녀'로부터 가정 방문 개별 축하를 받았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의 모든 생활 기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주택·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사고나 긴급 상황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은 평온하게 휴일을 보낼 수 있었다.

에너지 기업들 역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각 가정에 전기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모든 시설에는 필요한 수준의 연료 비축분이 확보돼 있었다.

## 1월 13일은 러시아 출판의 날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도의 언론인 여러분, 언론 매체 종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전문적인 명절인 '러시아 출판(언론)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론과 소셜 미디어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원천이며,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데 거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객관성과 정직함과 같은 언론인의 자질은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섬 지역 기자단인 여러분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독자들을 존중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필요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겪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지역 정부의 노력을 여러분의 노고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론은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 의식을 일깨우고, 핵심적인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이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주민들이 특수 군사 작전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호 물품을 모으고, 도시와 마을을 정비하는 일에 동참하며, 지역 프로그램인 '행복한 모성'의 실현을 지지하는 것 또한 상당 부분 언론의 공로 덕분입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모든 언론 매체 및 소셜 미디어 종사자 여러분께 강건한 건강과 창의적인 에너지, 성공적인 새 프로젝트,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독자·시청자·청취자들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최초 자동차 가스 장비 시험 연구소 개소

사할린주 최초의 자동차 가스 실린더 장비 전문 시험 연구소가 주도에 운영을 시작했다. 이 연구소는 승용차와 화물차의 가스 장비 개조 허가를 발급하고, 설치 이후 차량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서류는 차주가 국가교통안전국에서 차량을 재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이와 같은 절차는 주로 러시아 중부 지역의 시험 연구소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연구소 개소로 사할린 지역 내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할린의 시험 연구소는 가스 엔진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차량 가스 연료 전환을 지원하려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됐다.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책에 힘입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차량 개조를 원하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 주민들은 최대 15만 루블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개조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

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돼, 사할린주 에너지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부가 정비소 측에 직접 비용을 보전한다. 차주는 국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술 검사를 받기만 하면 되며, 차량 개조 작업과 서류 작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현재 사할린주에서는 약 7천 대의 차량이 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승용차뿐 아니라 대중교통, 공공 서비스용 차량, 농기계 등도 이른바 '친환경 연료'로 운행 중이다. 이러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드미트리 쿠바린 사할린주 에너지부 장관은 "가스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에 공공 서비스용 장비 28대와 가스 연료 버스 33대를 도입했다"며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연료로의 대규모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을 더욱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할린주, 운영 고용 센터 '러시아 일자리' 개소

사할린주에 운영 고용 센터 '러시아 일자리'가 문을 열었다. 이 센터는 지역 내 인력 관리와 노동 시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신설된 기관은 도내 각 시·군 지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된 업무 표준과 현대적인 서비스, 주민들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엘레나 사벨리에와 센터장은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구직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진로 선택과 교육에서부터 취업과 커리어 성장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직업적 여정 전반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운영 고용 센터는 이러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밝혔다.

운영 고용 센터의 전문가들은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통합 업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신 구인 정보를 담은 인력 뱅크를 조성하고, 개인의 적성과 진로 선택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재교육 과정도 조직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에는 '러시아 일자리' 포털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가 활용되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이동식 사무실 등 현장 방문 방식도 함께 도입된다.

러시아 고용 서비스의 종합적인 현대화는 국가 프로젝트인 '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현대화 작업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사할린주는 2028년에 해당 프로젝트에 합류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2025년을 돌아보며

##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크고 작은 사업·행사·사건

2025년은 대조국전쟁 전승 80주년이자 한반도 광복 80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와 관련해 크고 작은 기념 행사들이 한 해 동안 이어졌다.

2025년 역시 세계 정세는 복잡했다. 6월에는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러시아와의 '국익에 기반한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 정세의 복합적인 변화로 러시아-한국 관계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사할린 동포들은 러시아(사할린)와 한국 간 직항 노선 재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기반으로 군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2025년 사할린 한인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소외된 동포 후손들의 권리 보장과 영주귀국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 국회에서 심의·검토를 거쳐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양문석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했다.

한편 2023년 4월 사할린 동포 사회에서 발생한 큰 갈등의 여파로, 동포 사회는 아직 완전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각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1월 8일~14일** -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본지 1월 10일호)

**1월 1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 주최로 연례 한인 디아스포라 속기 체스 대회 개최. (본지 1월 17일호, 러시아어면)

**1월 11일** -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 특별 장애아를 위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가 및 후원. (본지 1월 17일호)

**1월 18일** -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관련 설명회 개최. 주요 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KIN(지구촌 동포연대) 최상구 대표가 발표를 맡음. (본지 1월 24일호)

**1월 18일** - 사할린한인연합회 결산선거회의 개최, 고영순 마카로

브 향토박물관 관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됨. (본지 1월 24일호)

**1월 22일** - 사할린국립대 공과대학에서 '한민족 문화의 날' 행사 개최. 주최는 사할린국립대와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 '한글' 창작회(회장 배영희)는 한글 쓰기, 민화, 김밥 만들기 등 체험 교실을 운영했고, '오스트로브' 무술센터(관장 안수학)는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다. (본지 1월 24일호, 러시아어면)

**1월 24일** - '출판의 날'을 맞아 새고려신문사 대표를 비롯한 사할린 한인 언론인 4명이 사할린주지사 표창을 받음. (본지 1월 31일호)

**1월 25일** - 1월 29일 음력 설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행사 개최. 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본지 1월 31일호)

**1월 2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 노인정 어르신들을 초청해 설맞이 축하 행사 진행. (본지 1월 31일호)

**1월 31일** -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열어' 기획의 일환으로 제2회 윗놀이 대회 개최. 주최: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동양학부,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한국어 교사협회, 사할린주청년회. 후원: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아리랑장학회. (본지 2월 7일호)

**2월 1일** - 음력 설을 맞아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 주최로 200여 명이 참석한 설맞이 행사 개최. (본지 2월

7일호)

**2월 2일** - '에트노스' 아동예술 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 주최로 독특한 '사할린 한식' 축제 개최. (본지 2월 7일호)

**2월 8일** - 2024년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길에 오름. 단체 입국 희망자들은 적십자사 인솔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 (본지 2월 7일·14일호)

**2월 12일** - 사할린 동포 화가 조성용 씨의 개인전 '두 천 년의 경계에서' 개막. (본지 2월 14일호)

**2월 12일** - 사할린주미술박물관, 특수군사작전 중 전사한 사할린 동포 이기정을 추모하는 전시 개최. (본지 2월 14일호)

**2월 15일** - 코르사코브에서 1세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최.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주청년한인회가 한국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으로 진행. (본지 2월 21일호, 러시아어면)

**3월 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소브레멘니크' 미술전시관에서 새고려신문 기획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의 일환으로 조성용 화백과의 만남 개최. (본지 3월 7일호)

**3월 3일** -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5년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예비 대상 인원은 총 270명이며, 접수는 4월 30일까지 진행. (본지 2월 28일호)

**3월 15일** - 돌린스크에서 1세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속 개최. (본지 3월 21일호)

**3월 15일** - 사할린주한인협회, 특수군사작전 군인들을 위해 김치를 담가 18일 전선 지역으로 전달. (본지 3월 21일호)

**3월 1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결산선거회의에서 림종환 씨가 다수결로 회장에 재선됨. (본지 3월 21일호)

**3월 중순** - 사할린 군병원의 요청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가 계절용 삼을 구입해 전달. (본지 3월 21일호)

**3월 18일** - '전함 팔라다' 도서를 중심으로 한 지역학(조선) 경시대회 개최. 주최: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사할린주한인협회. (본지 3월 21일호)

(다음 호에 계속)

(본사 편집부)

## 이모저모

### 새해맞이 열차 '겨울 동화', 사할린 여행 마쳐

실제 증기 기관차가 견인하는 동화 같은 열차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코르사코브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노선을 총 세 차례 왕복 운행했다.

1월 9일(금), 사할린 주민들은 독특한 새해 프로젝트인 '겨울 동화' 열차의 웅장한 피날레를 목격했다. 추위 할아버지가 지역에 직접 선물한 실제 증기 기관차가 포함된 이 축제 열차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를 잇는 노선을 세 차례 왕복 운행했다. 이번 새해 운행은 주 정부의 지원 아래 '러시아 철도'와 '사할린 여객운송회사'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겨울 동화' 열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가장 소중한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이 되는 진정한 마법의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 되었다. 열차에 탑승한 어린이 승객들은 광대 고사, 쇼 프로젝트 '마그니토폰', '에스트라다 활동가 연합' 소속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광대 고사는 매 운행마다 미술 공연으로 승객들을 놀라게 했고, 쇼 프로젝트 팀은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친숙한 멜로디를 선사했다. 열정적인 진행자 아슬란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관객의 분위기를 능숙하게 이끌었다. 승객들은 그의 진행에 맞춰 게임에 적극 참여했으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맞히는 퀴즈를 즐겼다.

새해 열차 운행 가운데 가장 기다려온 순간은 바로 추위 할아버지의 등장이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동화 속 마법사를 맞이했다.

### Новогодний поезд «Зимняя сказка» завершил с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Сахалину

Сказочный состав, ведомый настоящим паровозом, трижды проехал по живописному маршруту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Корсакова и обратно.

В пятницу, 9 января, сахалинцы стали свидетелями грандиозного финала уникального новогоднего проек-

та — поезда «Зимняя сказка». Праздничный состав с настоящим паровозом, подаренным региону самим Дедом Морозом, трижды проехал по живописному маршруту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Корсакова и обратно. Новогодние рейсы организовали РЖД и «Пассажирск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езд «Зимняя сказка» стал не просто средством передвижения, а настоящим порталом в мир чудес, где оживали самые заветные детские мечты. Юных пассажиров новогоднего состава порадовали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 участием клоуна Гоши, шоу-проекта «Магнитофон» и артистов «Союза деятелей эстр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лоун Гоша каждый рейс удивлял пассажиров своими фокусами, а шоу-проект порадовал любимыми мелодиями, которые не оставили никого равнодушным. Настроением публики, словно дирижер оркестра, умело управлял зажигательный ведущий Аслан. Вместе с ним все собравшиеся с неподдельным энтузиазмом погрузились в игру: они угадывали звучавшие из колонок мелодии.

Самый долгожданный момент новогодних рейсов — появление Деда Мороза. Ребята с восторженными возгласами встречали сказочного волшебника.

### 사할린주 스키점프 대표팀, '성탄 투어'서 종합 우승

사할린주의 '하늘을 나는 스키 선수들'이 전러시아 대회에서 총 1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 공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대표팀은 전러시아 오픈 스키점프 대회인 '성탄 투어'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는 페름 변경의 쿨딤카르, 베레즈니키, 차이콥스키에서 열린 총 4단계 일정으로 진행됐다. 경기에는 러시아 20여 개 지역에서는 8세부터 13세까지의 선수들과 벨라루스 대표팀이 참가했다.

사할린 선수들은 모든 단계를 안정적으로 치르며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사할린주 대표팀은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총 16개의 메달을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ержала ряд побед на «Рождественском турне» по прыжкам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Островные летающие лыжники завоевали 16 медалей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борна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омко заявила о себе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открыт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прыжкам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Рождественское турне». Турнир объединил четыре этапа,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Кудымкар, Березники и Чайковский в Пермском крае. На старт вышли спортсме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8 до 13 лет более чем из 2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Сахалинцы уверенно прошли все этапы и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заняли первое место в общем зачете. Команда региона собрала 16 наград: восемь золотых, пять серебряных и три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 러시아 '대표 어린이 동요' 프로젝트, 4년째 지속

이 프로젝트는 자라나는 세대를 향한 중요한 도덕적 가치와 현대 음악, 애니메이션을 하나로 결합한 창작 프로젝트다.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직속 문화이니셔티브 재단의 지원을 받아 승리 박물관이 추진하는 독창적인 창작 프로젝트 '대표 어린이 동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모든 작품은 현대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노래해, 프로젝트에 진정성과 친근함을 더한다.

지난 4년간 이 프로젝트에는 전국의 어린 보컬리스트 약 4,000명이 참여했으며, 총 62곡의 노래가 제작돼 4장의 음악 앨범으로 발매됐다. 이들 작품의 인터넷 누적 스트리밍 횟수는 1억 회를 돌파했다. 노래와 함께 동명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46편도 제작돼 아이들과 부모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각 영상은 기억과 감사, 가족, 우정,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쉽고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낸 짧은 이야기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그들이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가치로 꼽힌다.

(3면에 계속)

## 광복 80주년 맞아

##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 김만겸

관리번호	80047		
성명	김만겸	한자	金萬謙
이명	金萬謙	성별	남
생년월일	(1886)	사망년월일	1938-10-08
본적	함경북도 경원		

## 공훈록

그는 어려서 한국 전통의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고, 조선인 소학교를 마친 뒤, 블라디보스토크 중등학교를 졸업했다.

1905년 러시아혁명에 참가한 바 있는 그는 1910년 8월 일본의 한국 강점에 항의하여 성명회(聲明會)가 발표한 선언에 서명하는 등의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간한 러시아신문 『달랴까야오끼 라이나(邊境)』 서울 주재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제의 조선침략 정책 비판 기사를 쓰다가 강제 추방당했다.

1916년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新韓村) 한민학교(韓民學校) 교사로 재직하면서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1917년 5월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에서 전러한족대표자회(全露韓族代表者會)가 열릴 때 참가했으며, 『청구신보』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을 적극 지지·옹호하는 글을 다수 발표하는 한편 「기미독립선언서」를 러시아로 번역하여 3·1운동을 알리는데 노력했다.

1919년 4월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 이르쿠츠크파)을 조직했으며, 동년 11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좌두(金佐斗)·김규만(金奎冕) 등과 독립단(獨立團)을 조직했다. 1920년 3월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부의장으로 선출된 후 5월 중국 상해로 파견되어 활동했다.

1920년 11월 상해에서 『공산(共產)』, 1921년에는 『신생활(新生活)』 등의 잡지를 발행했으며, 동년 5월 대한민국임시정부 학부

총장으로 활동했다.

1921년 5월 12일 국민대표기성회(國民代表期成會)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9월 19일 상해민단(上海民團)의 의사원(議事員)개선 때 본구(本區)에서 선출되었다.

1922년 초에는 고려공산당으로 형성된 무장군대에 참가하였고, 동년 7월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뒤 연해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그는 1927년 1월 블라디보스토크현(浦鹽縣) 집행위원회 고려부 수석위원으로 『고려농민(高麗農民)과 당사업(黨事業)의 개황(概況)』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고려인(한인)의 권익을 위해 힘썼다.

연해주소비에트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1929년 소련공산당에서 제명된 후 소련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참고문헌

- 在浦鹽露國新聞의 通信員(鮮人) 京城派遣의 件(朝憲機 第2264號, 1911. 10. 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3)
- 東亞日報(1922. 6. 19-6. 23)
- 韓民族運動年鑑(東文社, 1946) 167면
-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警察部, 1934)
- 騎驢隨筆(宋相燾, 1955) 243·245·247면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6) 제2권 144·148~149·430·440·447·452·471면,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6) 제3권 456·474·487·494면
- 現代史資料(姜德相, 1971) 제27권 167면
- 韓民族運動史料(국회도서관, 1976) 中國篇, 275·289~290·330·338·354·356~357·363·500면
-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4권 46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5권 418면

##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 '토박이' 다큐멘터리, 한국에서 특별 상영

다큐멘터리 영화 『토박이』(2025년 제작) 제작진의 오랜 바람이 마침내 현실이 된다. 이들의 작품이 한국에서 특별 상영된다.

사할린 지역에서 『토박이』 상영을 지원해 온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는 이번 한국 특별 상영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영순 회장과 김 라이사 사무국장, 영화 제작진인 안톤 도카 감독과 세르게이 하 프로듀서, 그리고 한국어 자막 번역을 맡은 이복순 우리말방송국 기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사할린 대표단이 오는 1월 1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에 필요한 비용은 제주아스콘사업조합(회장 양성완)이 전액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의 첫 특별 상영은 1월 21일 롯데시네마 제주연동 1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상영은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와 (사)제주문화포럼, 제주한문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사전 접수 문의: 010-3446-0523.

안산 고향마을에서는 1월 22일 오후 3시, 1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상영이 예정돼 있다. 사전 접수는 010-2966-7104로 하면 된다. 해당 상영은 안산 고향마을 노인회(회장 주현춘)와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가 공동 주최하고, 새고려신문사가 협력한다.

김포에서는 1월 24일 오후 2시 통진도서관에서 상영이 진행된다. 문의는 010-4232-0275로 하면 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1월 22일 안산에서 열리는 특별 상영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역사 전문가와 사회활동가, 촬영에 참여한 카메라맨 등도 초청될 예정이다.

한편 『토박이』는 러시아 사할린과 소치, 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촬영된 다큐멘터리로, 전문가와 사진 목격자 등 총 36명이 출연한다. 작품에는 희귀한 문서와 사진, 영상 자료가 함께 담겨 있다.

(배순신 기자)

## 이모저모

## (2면의 계속)

프로젝트 프로듀서인 크리스티나 슈코트키나는 “이 프로젝트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로, 아이들이 승리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애니메이션 기술과 보편적 가치의 결합을 통해 완성됐다. 역동적인 그래픽과 감성적인 음악적 장치를 통해 어린 출연자들은 또래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진정한 애국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땅에 대한 헌신과 고요한 내면의 힘으로 표현된다.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자 승리 박물관 관장인 알렉산드르 쉬콜니크는 “대표 어린이 동요는 가족과 선함, 명예와 용기,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은 노래”라며 “이 밝고 진솔한 작품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끈다. 대통령 직속 문화이니셔티브 재단을 설립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 В России четыре года живет проект «Главные детские песни»

Проект объединяет современную музыку, анимацию и важные нравственные смыслы, обращенные к подраста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В Росси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уникальный творческий проект «Главные детские песни», реализуемый Музеем Побед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Все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писаны современными авторами и исполнены детьми, что делает проект особенно искренним и близким своей аудитории. За четыре года проект объединил около 4 000 юных вокалист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За это время было создано 62 песни, выпущенные в четырех музыкальных альбомах, а их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слушиваний в интернете превысило 100 миллионов. Вместе с песнями появился и одноименный анимационный сериал из 46 серий, который полюбился детям и родителям.

Каждый клип проекта — это короткая история о памят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емье, дружбе и любви к Родине, рассказанная понятным и современным языком. Особая ценность проекта в том, что контент создается для детей и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позволяя им искренне говорить о важных темах.

«Это мостик между прошлым и будущим — контент,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детям понять цену Победы и сохранить правду», — говорит продюсер проекта Кристина Шкодкина.

Проект создан путем сочетания инновационных ани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 вечными ценностями. Через динамичную графику и эмоциональ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решения ю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говорят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о самом важном — о настоящем патриотизме, который проявляется не в громких словах, а в тихой внутренней силе и преданности своей земле.

«„Главные детские песни“ — это песни о семье, доброте, чести, мужестве и любви к Родине. Эти светлые и искренн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гревают сердца и делают нас добрее. Я искренне признателен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у Владимировичу Путину за создание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и поддержку нашего проекта», — подчеркнул автор проект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Музея Победы Александр Школьник.

## 러시아, 2026년부터 ‘청각 장애인 보행자’ 등 신규 도로 표지판 도입

202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도로 교통 체계를 위한 기술적 수단: 도로 표지판, 노면 표시, 신호등, 도로 방호벽 및 유도 장치 적용 규칙」에 관한 국가표준(GOST)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소 다섯 가지의 새로운 도로 표지판이 추가된다.

첫 번째는 ‘인공 경사로 통과 시 권장 속도’ 표지판으로, 과속방지턱 인근에서 인공 구조물을 통과할 때의 구체적인 권장 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두 번째로 도입되는 ‘청각 장애인 보행자’ 표지판은 학교나 의료기관 등 청각 장애인의 통행이 잦아 해당 보행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표지판에는 차량을 주행 방향과 평행하게, 비스듬히, 또는 수직으로 주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추가

된다.

아울러 계절적 제한 사항을 표시하는 별도의 표지판이 도입돼, ‘10월~5월’과 같이 도로 표지판의 적용 기간을 월 단위로 명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상 관련 표지판 가운데 하나인 ‘눈 쌓인 노면’ 표지판이 새롭게 추가되며, 구름과 눈송이를 결합한 디자인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정지선 위치를 안내하는 세로형 표지판도 새롭게 도입돼 운전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정지 지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 «Глухие пешеходы»:

## В России вводят новые дорожные знаки с начала 2026 года

С 1 января 2026 года в стране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дополнения к ГОСТу «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организаци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авила применения дорожных знаков, разметки, светофоров, дорожных ограждений и направляющих устройств».

В перечне новшеств — как минимум пять дорожных знаков.

Первый — «Рекомендуемая скорость при проезде искусственной неровности», когда близ «лежащего полицейского»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конкретную рекомендацию, с какой скоростью проехать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сооружению.

Второй знак — «Глухие пешеходы» — планируют разместить там, где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с такими столкнуться, то есть близ школ или медучреждениями, где часто бывают люди с нарушениями слуха.

К знаку «Парковка» непременно добавят информацию, как именно ставить машину: вдоль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под углом или перпендикулярно.

Также отдельный знак появится у сезо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который указывает время действия различных дорожных знаков по месяцам, например «октябрь — май».

Второй «погодный знак» — «Заснеженное покрытие» — объединил изображение тучи со снежинкой.

Кроме того, стоп-линию теперь можно будет прочитывать в вертикальном положении.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Шахматный турнир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ебольшая метель не стала помехой для любителей шахмат. 11 января, в уютном Шахматном клуб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традиционный турнир по блицу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ова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и Шахматная федерация области.

Атмосфера была по-настоящему тёплой и азартной. Шахматисты всех возрастов склонились над досками, чтобы в быстрых партиях выявить лучших.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завоевавшим главный кубок стал

Альберт Лим. Среди ветеранов не было равных Ри Ян Чуну. Сильнейшим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стал Макар Подковыров.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у женщин показала И Мен Ха.

Все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ёры получили заслуженные грамоты и денежные призы.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невзирая на непогоду, пришёл поддержать наши традиции и любимую игру. Отдель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 нашим спонсорам»,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Лим Ден Хван.

Наш корр.

## В Пхеньяне проходит крупная выставка достижений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В столице КНДР в эти дни проходит крупная "Выставка достижений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народной экономики 2025".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мероприятие носит характер подведения итогов того, что было сделано и разработано в сфере научных и технических инноваций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Как сообщает ЦТАК, выставка открылась 29 декабря в Пхеньяне в Холл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ыставо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рех революций". На нем собраны достижения и самые удачные, передовые разработки, технологии, которые были сделаны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рамках движения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жизни народа КНДР.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лоды труда ученых, инженеров, техников и рабочих из более чем 360 научных институтов,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со всей страны.

Выставка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не только среди специалистов, но и среди простого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ое посещает этот форум. Для экспертов же это также стало хорошим шансом познакомиться и обсудить различные аспекты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и их применения в обычной жизни.

Среди достижений, на которые СМИ КНДР обрати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ыделены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тенд для

электродвигателей лифтов, разработанн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и сотрудниками Пхеньянского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ран грузоподъемностью 45 тонн, созданный в научном центре порта Нампхо,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система распределения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разработанная в 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КНДР и другие.

Эксперты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нынешняя выставка стала своего рода итоговым отчетом о том, что ученые, инженеры и рабочие КНДР смогли достигнуть на основе поставленных перед ними задач на VIII съезд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2021 г.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жидается начало работы нового съезда партии, где будут обозначены новые цели развития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феры Страны чучхе.

Отметим, что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стоянно подчеркивал и подче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инновационных решений и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д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В одном из своих новогодних обращений к нации он заявил, что "сил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иле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и кратчайший путь к выполнен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 - придавать первостепенное значение развитию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Вадим Пак стал лучшим молод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ДШИ в России

В Москве прошёл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педагогов детс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школ и школ искусств. В финале состяз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России.

Приволж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представил преподаватель

фортепиано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 18 имени Музафарова в Казани Вадим Павлович Пак. Он победил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молод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ШИ».

Пак сначала стал лучшим среди 11 участ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тура в Та-

тарстане, затем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на окружном этапе, где соревновались педагоги из 12 субъектов Приволж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что обеспечило ему выход в федеральный финал.

Награду молодому педагогу вруч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ьга Любимова. (<https://t.me/saramkor>)

## Хорошая новость для корё-сарам

**Сеул, 12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причин, по которой объединение виз Н-2 и F-4 откладывалось, была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 разный перечень разрешённых сфер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ка по визе Н-2 можно было официально работать в ряде простых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профессий, для визы F-4 эти же виды труда оставались запрещённым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а практике именно там были заняты тысяч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стран СНГ.

9 января 2026 года ситуация принципиально изменилась.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публикован обновлённый перечень сфер, в которых теперь разрешена трудо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визе F-4.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структурное препятствие для объединения виз фактически устранено. Мы очень близки к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ажной новости.

Виды работ, которые теперь разрешены по визе F-4 ((перевод с оригиналь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кста уведомления Минюста). Теперь владельцы визы F-4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в следующих сферах простой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й занятости: Строительный подсобный рабочий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и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ты на строительных объектах). Подсобный рабочий в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сфере добычи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Погрузочно-разгрузочные работы (перемещение, загрузка и выгрузка товаров). Прочие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погрузочно-разгрузочные работы (складские и логистические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операции). Работник ручной упаковки (ручная

упаковка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Работник ручной маркировки (наклеивание этикеток, стикеров, маркировка) товаров вручную. Работник автозаправочной станции (обслуживание клиентов и поддержание порядка на АЗС). Работник по выкладке товаров и поддержанию порядка в магазинах (расстановка товаров, поддержание порядка в торговом зале). Работник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торговых автоматов (наполнение, контроль и базов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вендинговых автоматов). Помощник парковщика без управления транспортным средством (помощь при парковке без права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мобилем)

Что остаётся без изменений? По визе F-4 по-прежнему запрещена работа: в сфере азартных игр, в ночных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ях,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тиворечащей общественной морали. Региональный аспект.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визы F-4,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егионах с сокращающимся населением,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 применяютс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фер развлечений и азартных игр.

Изменения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со 2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Для корё-сарам это меньше серых зон и меньше риска нарушить визовый режим. Изменения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как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этап к объединению виз Н-2 и F-4, вопро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оторого АКРК поднимала более 5 лет.

Подготовлено пресс-службой АКРК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двадца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 Младшим братьям

Кажется, что с момента нашей разлуки прошел лишь один день, но, оглядываясь назад, понимаю, что прошло тридцать с лишним лет. Не с чем даже сравнить то, как сильно мы хотим увидеться.

Прожив десятки лет без вестей и без какой-либо связи, я уже смирился с мыслью провести так всю жизнь. Но благодаря вашим усилиям на родине, у нас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общаться через радио или через письма. Не знаю, как вас и благодарить за это. Скажите, не изменилось ли за это время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братьев? Живёте ли вы по-прежнему по старому адресу? В надежде на это я несколько раз отправлял весточки. Если это письмо дойдет, пожалуйста, ответьте по радио или письмом, и я подробно опишу, как прожил эти тридцать с лишним лет и как сложилась моя семейная жизнь.

Я всегда надеялся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о вынужден был жениться повторно, и у нас родилась дочь. Не знаю, живы ли еще родители, — непутевый сын даже не ведаёт, живы они или нет. Если это письмо дойдет, сообщите, пожалуйста. А также подробно напишите, живы ли младшие братья Самджо (삼조), Чуджо (주조), Ыльджо (을조), Кёндо (경조), Суджо (수조) и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Куён Намён (구연 남녕).

Как старший сын, я не смог исполнить свой долг (1) перед родителями и родными, переложив все заботы на вас, младших братьев. Не знаю, как выразить свое чувство вины и беспокойства. И, как вы все знаете, мое настоящее имя — Укджо (욱조), но здесь меня зовут Кваннам (광남). Поэтому, пожалуйста, обращайтесь ко мне в радиопередачах или в ответах как Кваннам. И еще одна просьба: расскажите подробно, как поживают бабушка Сунэ и сама Сунэ (순애).

У меня еще одна просьба. Так как я не мог жить один, то женился повторно. Теперь я женат на Пак Бюён (박부연), дочери Пак Чжехёна (박재현). Дорогие братья, пере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эту вестку тестю. Постарайтесь передать эту информацию через радио или через письма. Адрес тестя, Пак Чжехёна (박재현): провинция Кёнсан-Пукто, уезд Чхондо, волость Исо, деревня Суя.

И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просьба: как вы, наверное, знаете, чтобы письмо дошло, его нужно отправить через советский материк (2), но там нет надежных людей. Поэтому, пожалуйста, передайте по радио новости о положении семьи и домашних делах. Как уже упоминал, мое настоящее имя — Укджо, но здесь я известен как Кваннам. Поэтому, пожалуйста, в радиопередачах называйте меня Ким Кваннам из города Томари, Сахалин.

И последнее: во время радиопередач дикторы часто говорят, что не нужно отправлять письма прямо с Сахалина, а лучше с материка. Но, пожалуйста, передайте, чтобы так не делали. Конечно, это правда, но если письма будут конфисковывать даже на материке, то мы вообще потеряем связь. Поэтому, пожалуйста, не давайте таких советов в эфире.

Хоть и есть о чем писать, но, если это письмо дойдет, я напишу подробнее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а пока ограничусь этим. И еще одна моя надежда: если связь наладится, обязательно отправьте, пожалуйста, семейную фотографию. Когда я уезжал, оба родителя были живы, но, если они скончались, сообщите, пожалуйста, точную дату.

27 сентября 1973 года Город Томари, Сахалин  
Старший брат Ким Укджо (김욱조),  
сейчас Ким Кваннам (김광남)

#### Комментарии:

(1) Автор имеет в виду, что как старший сын, согласно корейским представлениям, именно он должен заботиться о родителях и блюсти традиции в семье.

(2) Скорее всего, автор имеет в виду запутанный способ общения с родиной.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име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бмен почтой был невозможен. Однако, между СССР и Японией существовало почтовое сообщение и отправить письмо можно было из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через Японию в Южную Корею.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оветские орга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стально следили за этой корреспонденцией, около 7 тыс. писем, полученных Пак Но Хаком, общественным деятелем в Японии,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это возможн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автор имеет в виду условия, когда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орган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к обмену письма корейцев с родиной пропускало письма редко, тогда как в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шансы на то, что письмо дойдет до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о больше. Однако это требовало «надежного» человека, способного отправить письмо с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СССР.

Юлия Дин, к.и.н.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Спецпрокурор требует для Юн Сок Ёля смертной казни

Группа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потребовала смертной казни для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за попытк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объявил в стране чрезвычайное положение с целью захвата судебной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власти», - говорится в постановлении группы спецпрокурора, зачитанном 13 января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слушании по делу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перевороте в Центральном окружном суде Сеула. Юн Сок Ёля обвиняют в подрыве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порядка путём объявл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без законных оснований. Кроме того, его обвиняют в преступном сговоре с бывшим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Ким Ён Хёном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других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По указанию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были мобилизованы войска и полиция для блокирования зд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и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ния голосованию за отмену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Группа спецпрокурора потребовала наказания в виде пожизнен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для бывшего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Ким Ён Хёна, который играл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попытке госпереворота, выполняя указания Юн Сок Ёля. Вынесение приговора ожидается примерно в середине февраля.

## Минобороны РК проведё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заявлений СК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К подтвердило готов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полицией для выполнения указ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Ли Чжэ Мёна. Ране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распорядился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овест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заявлени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 вторжени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такие действия как отправка на Север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тяжк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угрожающее мир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ы оперативно выполним указ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 заявили в минобороны, не предостави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дробностей о составе и численности совместной оперативной группы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и полиции. Оперативная группа проведё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рассмотрев все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 добавили в минобороны.

## Экспорт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з РК достиг рекорда

Экспорт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з РК достиг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13 млрд 62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5,1%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мировая популярность корейски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таких как лапша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рамен, соусы и фрукты, - сообщили 12 янва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экспор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вырос на 4,3%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и составил 10 млрд 410 млн долларов,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в 100 млрд долларов. Экспорт продукции, связанной с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такой как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техника и ветеринарные препараты, вырос на 8%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и составил 3 млрд 22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частности, экспорт рамен впервые достиг 1 млрд 52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21,9%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Крупнейшим импортёром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з РК являются США (1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Китай (1 млрд 590 млн долларов).

##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Надежда-2026» достигла цели

Как сообщили 12 января в Корейском фонде помощи нуждающимся, цель ежегодной кампании «Надежда-2026: Делимся радостью» достигнута. По традиции в центре Сеула установлена большая башня в виде градусника, показывавшая сумму собранных пожертвовани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емпература составляет 103,9 градуса. Она превысила 100 градусов на два дня ра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дин градус - это 1%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ночь 12 января, общая сумма собранных средств составила 467 млрд 600 млн вон (318 млн 400 тыс. долларов), превысив цель в 450 млрд вон. Ранее достижение результата объявлялись активными пожертвованиями крупных корпораций. В частности, банки Кунмин, Синхан, Хана и Ури пожертвовали 80 млрд вон в начале кампании. Вскоре к ни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Samsung и SK Group. Кампания «Надежда-2026: Делимся радостью» проходит с 1 декабря до 31 января.

## Продажи сувениров под брендом MU:DS в 2025 году 41,3 млрд вон

Благодаря росту популярност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одажи сувенир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основе копий экспон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узеев с брендом «MU:DS» достигли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Название бренда «MU:DS» образовано путём слияния слов museum (музей) и goods (товары). Как сообщили 13 января в Фонде культу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узеев, объём продаж товаров под брендом MU:DS составил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41 млрд 337 млн вон (28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90% превышает показатель 2024 года. Рост популярности сувениров способствовал повышению интереса к самим музея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ольк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центральный музей Кореи посетили почти 6,5 млн человек.

RKI

##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и премьер Японии сыграли на барабанах после переговоров

13 января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в Нару прибыл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который в тот же день провёл саммит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Японии Санаэ Такаити. Но журналист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е столько на официальные итоги переговоров, сколько на неожиданные неформальные сцены,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между двумя лидерами за рамками протокольных встреч.

В частности, мировые СМИ облетела фотография, где Такаити и Ли играют вместе на барабанах. Как оказалось, это стало сюрпризом от японской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президенту.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и общения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Ли Чжэ Мён и Санаэ Такаити неожиданно проследовали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л, где их ждали барабанные установки. Там они облачились в одинаковые синие костюмы,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флагами и именами, вышитыми на форме, а затем исполнили композиции Dynamite всемирной известной К-ПОП группы BTS и Golden - саундтрек к совместному корейско-японо-американскому кинопроекту.

Как отмет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этот момент стал наглядным проявлением личног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теплой атмосферы между Ли и Такаити.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 давно известная своей любовью к рок-музыке и игре на барабанах, взяла на себя ведущую роль, объясняя партнеру базовые приемы и направляя дуэт. В завершение они обменялись подписанными барабанными палочками.

Сам Ли Чжэ Мён с улыбкой признался, что исполнил

давнюю мечту детства - впервые сыграл на барабанах. Такаит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дчеркнула символ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эпизода, превратившего формальны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диалог в живой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Отметим, что это не единственный случай проявления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ского премьера корейскому гостю. Учтывая, что встреча проходила в родном городе Такаити Нара, т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сделала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ыглядеть как гостеприимная хозяйка. Например, она лично пришла встречать Ли Чжэ Мёна к отелю, где он остановился, и сделала при встрече глубокий церемониальный поклон.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мой родной город - я искренне рада, что вы здесь", - сказала она. Премьер оценила предложение Ли, которо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озвучил в ходе их предыдущей встречи в корейском Кенчжу. Тогда Ли Чжэ Мён, принимая приглашение посетить Страну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предложил провести это где-то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цы, сам намекнув, что хотел бы посетить родину японского премьера. Та с радостью поддержала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и, как видно, решила усилить "личный момент" от общения.

Журналисты отметили, что появлени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у дверей отеля, где проживал Ли Чжэ Мён, стало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для Ли и он немного смутился. Выйдя из машины и ответив поклоном на поклон, он немного смущенно сказал: "Если вы так выходите за рамки протокола, то я и не знаю, как мне вест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Южная Корея готовит переговоры с Россией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намерен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властями РФ в целях организации тестового прох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нтейнеровоза из Пусана в Роттердам через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СМП). Корея хочет получить от России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ход через воды РФ и проверить перспектив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МП как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канала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эксплуатации маршрута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задач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Ли Чжэ Мёном, а Пусан, согласно замыслу корейцев, должен стать ключевым портом в этой стратегии.

Новые пояснения по поводу плана организовать тестовый проход контейнеровоза дал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5 января в Пусан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и.о. министра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Сон Бом. Он подтвердил нацелен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данного плана, сообщив, что э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оизойдет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В район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меньше всего льда примерно в сентябре месяце, это своего рода лето для того региона... Примерно тогда мы и планируем подготовить тестовый проход судна через СМП", - заявил он.

Напомним, что, согласно ранее обнародованным деталям этой инициативы, пл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оход контейнеровоза вместимостью 3000 TEU из Пусана до Роттердама через СМП.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хода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конкурс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судоходных компаний, способных работать в арк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Победителю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до 11 млрд вон (около 7 млн долларов),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ли дооснащение ледокольного судна,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льготы по портовым сборам. Для координации проекта создан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й штаб по развитию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с участием деся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Цель данного прохода - изучить на практике условия СМП, накопить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еревозок по арктическому маршруту, что позволит проверить экономическую и техническую реализуемость постоянных масштабных грузоперевозок.

До сих пор Южная Корея пять раз проводила балкеры через СМП, но контейнеровозы РК там еще не ходили ни разу. На активность корейцев во многом

повлиял тот факт,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итай впервые организовал проход своего контейнеровоза через СМП, опередив Сеул. Кроме того, активное задействован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политики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Ли Чжэ Мёном. Пусан же должен стать главной в Южной Кореи опорной точкой маршрута до Европы через арктические воды.

И.о. министра Ким Сон Бом также заявил о планах Сеула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Москвой для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роход через СМП, выразив готовность так или иначе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наложенными на РФ санкциями. "Россия требует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роход через ту часть СМП, которая следует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воды или исключитель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зону РФ. В этой связи важ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власт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Вместе с тем, так как наша страна также участвует в западных санкциях, введенных против РФ, мы планируем найти взаимоприемлемый план, - пояснил Ким. - Мы готовим переговоры с властями РФ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Как только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а компания и судно, которое будет выбрано для тестового прохода через СМП, мы проведем работу по набору грузов на этот контейнеровоз", - сообщил чиновник.

Отметим, что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проект задействования СМП крайне важен и по внутренни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организационным соображениям. Буквальн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ведомство было переведено из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толицы РК Сечжон в Пусан. Министерству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вдохнуть новую жизнь в этот второй по размерам мегаполис и крупнейший пор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Пусан, согласно планам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должен стать ключевым логистическим узлом региона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этой связи чиновники планируют ряд крупных инициатив, включая СМП,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этих планов. В рамках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стратегии "Пусан 3.0"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развитие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иск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а также подготовк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 от полярных моряков до инженеров ледокольного фло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Завершены лётные испытания истребителя KF-21

Вс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лётные испытания нов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истребителя KF-21 успешно завершены. Как сообщили 13 января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стве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после презентации первого прототипа KF-21 в апреле 2021 года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около 1.600 лётных испытаний. Все они прошли без каких-либо происшествий, 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испытание состоялось 12 января. Оконча-

тельную доработку истребителя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до конца первого полугодия, а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первая партия будет поставлена в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е силы. Работа над отечественным истребителем KF-21 началась в 2015 году. Он призван заменить устаревающий парк американских истребителей F-4 и F-5.

KBS World

### 13 января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сотрудников С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В текст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казано: «Уважаемые журналист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сотрудник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 Днем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СМИ и социальные медиа являются ключевым источником актуальной и важной для ж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исходящем в регионе, стране и мире. Социальные медиа играют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культуры в обществе. Поэтому особую ценность имеют такие каче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ессы, как объективность и честность.

Вы, островные журналисты, уважаете право своей аудитории на правду. Знаете потребности людей, оперативно и достоверно сообщаете об их проблемах и своим трудом помогаете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егиона менять к лучшему жизн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ша пресса пробуждает в земляках чувство гражданск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бъединяет их для решения ключе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задач.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собирают подписки для бойцов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могают приводить в порядок города и села. Поддерживают реализацию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Желаю всем сотрудникам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социальных меди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творческой энергии, новых успешных проектов, благодарных читателей, зрителей и слушателей!

С праздником, друзья!».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тметила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без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лись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На зимних каникулах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активно посещали спортив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что немаловажно, этот период прошел для области без серьез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мест отдыха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С начала года его посетили более 57 тысяч человек, а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ходов на канатную дорогу превысило 360 тысяч.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 это же время комплекс посетили около 49 тысяч людей.

Не отставала от спортивного досуга и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Активно работали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31 декабря по 11 января они провели 42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более 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спортивные-игровые программы, экскурсии и други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события.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ся театральный центр имени Чехова. За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здесь показали 59 спектаклей для более чем 20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о около 100 детей из 36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персональн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на дому от театральных Деда Мороза и Снегурочки.

Все системы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региона работали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В сфер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аварий и инцидентов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е было, что позволило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спокойно наслаждаться праздничными днями.

Энергокомпании работали в режиме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обеспечивая бесперебойное снабжение домов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и газом. На всех объектах были созд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запасы топлива.

### Управляющий кадровый центр «Работа России» открыл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лся управляющий кадровый центр «Работа России». Он станет ключевой площадкой по работе с кадрами и рынком труда в регионе.

Новое учреждение будет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филиалов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недрять единые стандарты работы, современные сервисы и новые формат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жителями.

— Наша задача — не просто помогать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а сопровождать человека на всех этапа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пути: от выбора направления и обучения д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Управляющий кадровый центр позволяет выстроить эту работу системно и адресно,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Елена Савельева.

Специалисты управляющего кадрового центра выстраивают единую работу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и соискателями: сформируют актуальный банк вакансий, помогут с профориентацией и карьерным выбором, организуют переобучение под потребности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В работе центра задействуют цифровые сервисы, включая портал «Работа России», а также выездные форматы — мобильный офис для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территорий.

Отметим, комплексн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службы за-

нятости в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нацпроекта «Кадры». Обновление проходит с 2023 года поэтапн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проекту в 2028 году.

### Первые ма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ьзуются услугой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малышей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Первые мам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льзуются специальной группой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 до 1,5 лет. Эта услуга одна из составляющих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смотра и ухода уже вызвала высокий интерес у родителей — поступило более 70 заявок.

Организация групп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на базе муниципальных детских садов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важных инициатив проекта губернатор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илотной площадкой стал детский сад №19 «Аленушка». Здесь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смотр и уход за детьми в возрасте от года до полутора лет.

Отметим эта услуга для родителей малышей, которые еще не получили путевку в сад, но у их мам есть потребность на время оставить ребенка под присмотром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Одной из мам, которая воспользовалась группой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стал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нга Иванова. Девочке Лие 1 год и 4 месяца, ее мама узнала о проекте из новостей. Их история наглядно показывает, как эта инициатива помогает решать повседневные задачи молодых семей.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горожанка завершила оформление документов и сразу решила попробовать, как ребенок адаптируется к новой обстановке. Главным опасением в таких ситуациях для мамы является стресс малыша при расставании. Однако опыт оказал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м с первой минуты.

— Я сразу решила, ч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смотра и ухода в детском саду — это очень нужная для меня услуга. Оформление прошло быстро и просто: записались к педиатру, прошли обследование — и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медицинская карта для сада была готова, — рассказывает участница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 Дочка пошла в группу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хотя я очень этого боялась. Воспитатели очень отзывчивые, добрые, позитивные. В первый раз, когда пришли забирать ребенка, дочка не хотела уходить, настолько ей понравилось общение. Здесь комфортно, уютно.

Мама также подчеркивает значимость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и программ поддержки для всех родителей региона: «Я считаю, такая услуга очень важна. Любая мамочка меня поймет, ведь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сделать свои дела и не переживать за ребенка. Хочу выразить больш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Игоревичу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за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и поддержку. Вообще в регионе очен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детей и семей. Ранее мы так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программой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для погашения ипотеки, которая также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нашим губернатором».

Как отмечает руководство детского сада «Аленушка», услуга оказалась крайне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с первых дней.

— Ежедневно к нам поступают заявки. Мы — первый детский сад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оторый поддержал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и собираемся в дальнейшем очень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ть в ней участие. Э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проек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ой присмотра и ухода может любая мам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нужно оставить заявку, связаться с нами, оформить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Мы готовы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по любым вопросам и в каждой ситуации решаем вопрос индивидуально, — сообщ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заведующей детского сада №19 «Аленушка» Елена Крутикова.

Остави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услуги можно на портале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У родителей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брать утреннее время с 9.00 до 12.00 или привести ребенка после обеда — с 15.00 до 18.00. При этом оставить малыша можно как на один час, так и на два или три.

Напомним, уже второй год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бъявле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Запуск групп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 одна из практических мер в рамках эт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направленного на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женщин, воспитывающих детей или готовящихся стать мамами. Проект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ряд социальных и матер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призванных сделать жизнь семей с детьми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и защищенной.

Поддержка семей с детьми и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для матерей остаются в числе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в рабо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и мэ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я Надашина. Добавим, все актуальные новости и ва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размещаются в официально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личный прием жителей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 принял адресные решения по волнующим их вопросам.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талья попросила присвоить ей первую группу инвалидности вместо второй. Также о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е получала 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реабилитации, но после обращения к губернатору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привезл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а базе стационара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запас ТСР,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расходными и требуют постоянного обновления. Что касается группы инвалидности, то пациентку госпитализируют, проведу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подготовят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повторной медико-социальной экспертизы.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римут специалисты бюро МСЭ.

— У меня есть еще просьба. Живу в частном доме и хочу подключить его к газу, так гораздо экономичнее. И еще зимой к моему дому плохо чистят дорогу. Однажды скорая не могла заехать, — рассказала пенсионерка.

Адрес женщины за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д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Другая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просила помощи в решении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 Живу на пятом этаже. Суставы болят так, что жить невозможно. Как выйду на улицу, потом страдаю от боли. Депрессия от этого начинается. Хочу переехать на первый этаж. Пробовала действовать через риэлторов. Но вы знаете, как они работают: за три рубля продают мою квартиру, за пять предлагают новую, — поделилась Наталья Ефимовна.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казывает инвалидам помощь в обмене жилья. Но медико-социальная экспертиза отказала женщине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инвалидности.

— Проведите нов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чтобы вопрос решился положительно. Нужно помочь человеку и окружить заботой,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ое же решение — провести повторную экспертизу — губернатор принял и для Ольги Анатольев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торую группу инвалидности (рабочую, но с установлением особых условий труда) поменяли на третью (рабочую).

— Я перенесла две операции по онкологии, тяжелую химиотерапию. У меня парез гортани, удалена щитовидная железа. Сложно говорить, есть, дышать, — рассказала пациентка.

После медико-социальной экспертизы для женщины сделают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реабилит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усмотрят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е лечение в Крыму.

Реабилитацию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омогут организовать для юной сахалинки с аутизмом. Мама девочки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раньше они ездили за свой счет, медикаменты и занятия с педагогами всегда приводили к хорошим результатам. Но в августе муж без вести пропал на СВО, и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семьи изменилось. Женщине помогут также оформи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выплаты, если супруга признают погибшим.

На встрече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обратился также молодая женщина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1 типа. Она попросила установить инсулиновую помпу. Это компактное устройство для автоматического введения инсулина, которое помогае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уровень сахара в крови и улучшае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пациентов, избавляя от частых инъекций.

— У меня нейропатия верхних и нижних конечностей. Это не дает нормально жить. Испытываю постоянные боли. Обезболивающие не помогают. Помогает только холод ненадолго. Сплю под вентилятором, — рассказала южносахалинка.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здраве пояснили, что инсулиновыми помпами обеспечивают только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и беременных,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необходимо реш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эндокринологии.

— Нужно наметить план, как помочь девушке. Чтобы она могла работать, воспитывать детей и радоваться жизни без бол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телемедицинск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с федеральной клиникой или отправить пациентку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в Москв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Курильск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дистанционно. В телефонном разговоре рассказала губернатору, что у ее ребенка сложная форма диабета. Регулярно требуются комплекты к инсулиновой помпе, но на Кунашире бывают задержки с доставкой. Губернатор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чтобы ребенку предоставляли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не на один месяц, а сразу на три.

Отмети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 личные приемы жителей. В ходе таких встреч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лично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ддержкой в разрешении волнующих их ситуац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 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 재외동포청, 국제이주기구(IOM)와 국내 귀환 희망동포 지원 협력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월 8일(목)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귀환을 희망하는 동포들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귀환·정착할 수 있



도록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UN 산하 이주 분야 국제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전세계 171여개 국가에 사무소 소재 (한국대표부는 서울에 위치)

- △이주 관련 정부 정책 자문 및 협의 △인신 매매 피해자 식별 및 지원 △난민 재정착 지원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이주 분야 인식 개선 등 수행 (재외동포청 제공)

#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이제 전담부서가 돕는다"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신설

## 국내 귀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 지원 제공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년 1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새로 만든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귀환 동포는 약 86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민족적 정체성 등을 우리 국민과 공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전담해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외동포청은 작년 4월부터 임시조직인 '국내동포지원TF'를 운영하며 귀환 동포 지원을 시작했으나, 귀환 동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지원 수요도 커지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신설되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사업 지원 △나이와 상황에 맞춘 동포 정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우수 동포 인재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 △국내 귀환 동포 관련 조사·연구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 업무를 통해, 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과제이자 중점과제인 "국내 귀환 동포 지원 강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전년 대비 2.7억원 증액된(증가율 39%) 지자체 지원예산 9.6억원과 1억원 증액된(증가율 198%) 민간단체 지원예산 1.5억원을 활용해 국내 귀환 동포 정착 및 권익 신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우수 동포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국내·외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정착 지원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30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귀환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생활을 시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 「2025 재외동포현황」 통계 발표

## 181개국에 약 700만 명 거주, 2년 전(약708만 명) 대비 1.06% 감소

재외동포청은 12.31.(수) 홈페이지를 통해 「2025 재외동포현황」을 발표했다.

총 181개국에 7,006,703명의 재외동포가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2년 전인 2022년 말 기준 재외동포 규모(7,081,510명)와 비교할 때 1.06%(74,807명) 감소했다.

「재외동포현황」 통계는 매 홀수년마다 발표되며, 재외공관을 통해 2024.12.31.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지역별·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을 조사하여 산출한 추정치이다.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 발간 공식 자료(인구센서스 등 통계자료)를 기준 자료로 활용하되, 현지 사정과 공식 통계자료의 작성 시점 등을 감안하여 공관 보유 행정자료(민원 처리, 재외선거인명부, 재외국민 등록부 등),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수를 추정했다.

재외동포청은 「2025 재외동포현황」 발표에 앞서, 통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현황 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재외동포 분야 및 통계 전문가가 참여한 '재외동포 현황 통계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거주자격별 통계에 따르면 총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2,402,026명, 외국국적동포는 4,604,677명으로 직전 통계 대비 각각 2.67%(65,943명), 0.19%(8,864명) 감소하였다.

### ※ 거주자격별 현황

구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명)	1,037,047	1,208,884	156,095	2,402,026	4,604,677
증감(명)	14,036	-84,958	4,979	-65,943	-8,864
증감률(%)	1.37	-6.57	3.29	-2.67	-0.19

지역별로는 남아태, 유럽 지역에서 각각 12.50%(64,171명), 7.60%(15,065명) 증가하였으나, 재외동포의 87%가 분포한 동북아, 북미, 러시아·CIS 지역에서 재외동포 수가 각각 3.52%(102,728명), 1.49%(42,581명), 2.45%(11,182명) 감소하며 총 재외

동포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녀 수가 급년 통계부터 반영되면서 재외동포 수가 19.80%(158,852명)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경제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국내 귀환 및 외국으로 이주가 증가하며 12.39%(261,486명) 대폭 감소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 전체 재외동포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른 불참률이 현행화되어(기존 26%→15%) 적용함에 따라 재외동포수가 다소 감소하였고, 러시아·CIS 지역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태 지역은 관광 산업 회복 추세 및 기업 진출 증가 등의 요인, 유럽 지역의 경우 취업 및 유학생 유입 증가에 기인하여 재외동포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 지역별 현황

구분	동북아	남아태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CIS	이중동
총계(명) (백분율%)	2,816,295	577,483	2,820,200	106,348	213,161	444,971	28,245
증감(명)	-102,728	64,171	-42,581	3,597	15,065	-11,182	-1,149
증감률(%)	-3.52	12.50	-1.49	3.50	7.60	-2.45	-3.91

우리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2,557,047명), 중국(1,848,241명), 일본(960,970명), 캐나다(263,153명), 베트남(192,683명), 우즈베키스탄(175,338명), 호주(170,215명), 카자흐스탄(122,554명), 러시아(113,042명), 필리핀(52,695명)으로 나타났다.

「2025 재외동포현황」은 책자로 발간되어 주요 정부 기관, 대학 및 연구 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수립뿐 아니라 학술 연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등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 제공)

# 고려인 청년들, 모국서 호텔서비스 배우며 취업 역량 키운다

##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청년 40명, 1월 한 달간 국내 직업연수 참여

국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지역 고려인 청년들이 모국 대한민국에서 직업 역량을 키우는 연수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국내외 고려인 청년 40명(해외 27명, 국내 13명)을 대상으로 직업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연수기관은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이다.

참가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선발됐으며, 한식 조리·제과제빵 분야 등에서 총 120여 시간의 실습을 하고, 이와 더불어 80여 시간의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또한 연수 기간 중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식품서비스 실습 등 현장 중심의 호텔서비스 교육을 받고, 증류주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전통음식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복궁, 불국사 등을 견학하는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려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역량을 높이고, 모국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6월에 실시한 코딩·산업디자인 분야 산업연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고려인 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연수 입교식은 1월 5일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에서 열렸으며, 육광심 이사장, 이원영 학장과 재외동포청 이규현 아주러시아동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영 학장은 "음식은 문화를 담은 그릇으로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으며, 거주국에 한국을 알리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면서 "1개월의 집중 연수를 통해 연수생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라며, 인생에 남은 값진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수 기관인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은 1989년 설립된 호텔 관광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한국문화예술전문학교, 엠블던호텔 등을 운영하며 음식 관광 레저 산업 종사자를 위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 「재외동포 청년 직업연수(호텔서비스 분야)」 입교식 사진

(재외동포청 제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и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е,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Ли Ку Юла (21 декабря 1948 — 29 декабря 2025).

Уход Ли Ку Юла — это невосполнимая утрата не только для его семьи, но и для всей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внёс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в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ы,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этот тяжелый час мы разделяем боль утраты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Ли Ку Юла. Пусть его светлые дела и добрый образ навсегда останутся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이구울 씨 별세**

사할린의 사업가이자 사회활동가로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관계 증진에 헌신해 온 이구울(유리 니콜라예위츠) 씨가 2025년 12월 29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오랜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활발하고 의미 있는 교류 활동을 이어 왔으며, 러시아 원동고려인통일연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고위 국가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인은 사할린 한인 사회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할린주 한인기업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리구울 씨는 자선가로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히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문화 연구, 박물관 및 학술 활동을 꾸준히 지원했으며, 고인의 헌신과 후원 덕분에 사할린주미술박물관은 조선 미술의 독특한 작품들을 소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구울 씨는 새고려신문사와도 여러 기획을 진행했으며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새고려신문사는 깊은 슬픔에 잠긴 고인의 유가족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Ушёл из жизни Ли Ку Юл (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1948-2025) — известный бизнесмен и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посвятивший себя укреплению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н скончался 29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на 78-м году жизни.

Ли Ку Юл был фигурой, чья деятельность выходила далеко за рамки бизнеса. Он многие годы активно и плодотвор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л с КНДР, часто посещая страну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её руководства. За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н был удостоен высо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аград КНДР.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был известен как один из авторитетных лидер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Ли Ку Юл являл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2004-2013), а также возглавлял Союз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корейцев «Един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тхонрен»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Особую страницу в его биографии занимала меценат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Он оказывал значите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изучении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могал музейной и научной работе. Его личный вклад позволил Сахалинскому областному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музею приобрести уника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е, друзьям и коллегам Ли Ку Юла. У него остались супруга и два сына, которые достойно продолжают дело отца.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об этом незаурядном человеке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сердцах тех, кто его знал.

**ЮСМОК, Дин Юлия и коллектив авторо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사할린한인 1세 조 운규 씨가 중환 병으로 2026년 1월 1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비에에 잠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는 권경석 회장님의 아들 권 세르게이가 2026년 1월 1일 46세를 일기로 싱가포르에서 중환으로 별세하였음을 부고합니다.

비에에 잠긴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				<b>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b>	
<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i>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i>